

『상서』의 생태정치학:

‘천(天)’ 사상을 중심으로

이오륜*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천(天)”: 『상서』의 생태
3. “순천(順天)”: 인류의 생존 원리
4. “대천(代天)”: 인류의 정치 기조
5. “역천(逆天)”: 정벌의 대상
6. 나가는 말

국문초록

현대 사회의 기후변화는 큰 문젯거리며, 이것은 생태라는 개념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다. 따라서 생태의 시각에서 경전을 재해석함으로써 유의미한 내용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상서』에서 생태라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지만 천(天)은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 성균관대학교 유학동양한국철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연구교수

표현하는 대명사로서 생태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상서』는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천에 순응하길 주장하며, 홍범구주 가운데 몇몇 내용들은 천과 인간의 관계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한편 인간은 천을 대변하는 존재로서 천을 대신하여 자연계의 여러 사물들과 조화를 시도하는데, 여기에서 정치는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활동이다. 『상서』에 따르면 만일 인간이 천을 위배할 때에는 그에 마땅한 응징을 가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초 위에서 『상서』는 정벌과 혁명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즉 『상서』의 천은 풍부한 생태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재 근거와 모든 활동은 생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주제어: 생태, 『상서』, 순천(順天), 대천(代天), 역천(逆天)

1. 들어가는 말

경전은 동양철학을 전개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동양철학의 주요 견해들은 모두 경전에서부터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동양철학의 핵심은 경전에 있으며, 경전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진다. 당연히 현대 사회에서도 경전은 유의미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경전은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전은 단순히 과거의 죽은 지혜를 기록한 서적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는 지낭(智囊)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전에 대한 끊임없는 재해석은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요청된다. 즉 경전에서 언급된 내용으로부터 현대적으로 유의미한 내용을 발굴함으로써 인류는 발전과 번영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기후변화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예상

하지 못한 폭염 가뭄 폭우 홍수 등의 이상 현상은 자연계의 질서를 파괴하고 인류의 생존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는 생태라는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현대 사회에서 생태가 가지는 의미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인류는 스스로 생존하고 건강한 지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생태라는 개념을 심도 있게 반성하고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경전은 생태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서로서 주목할 만한 가치를 가진다. 경전이 내함하고 있는 다양한 논의들 속에서 생태와 관련된 관념 혹은 이론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의할 만한 점은 경전이 현대 사회의 생태와 관련된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 있다고 오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경전이 제작된 연대와 현대 사회는 상당히 긴 시간적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전 속에 등장하는 구절들이 생태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곤란하며, 비슷한 주제를 언급하더라도 단지 참고로만 사용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경전으로부터 생태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점들을 추출하거나 확장해낸다는 것이다. 경전에서 언급된 내용들은 과거 아니라 현실 속에서 활용될 때에 더욱 큰 가치를 가진다.

본 논문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생태의 문제를 중심으로 경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지만 시간과 지면의 관계로 인하여 동양철학의 모든 경전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은 『상서』를 중심으로 삼아 생태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내용들을 발굴하고 관련된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¹⁾ 『상서』는 유가의 주요 경

1) 지금까지 생태 개념을 사용하여 유가와 동양철학을 이해하는 연구성과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하지만 『상서』 속에서 생태학적 관점들을 발굴하는 연구성과는 전무하다. 아마도 종래의 학자들은 정치적 관점에만 국한하여 『상서』를 이해하였기에 『상서』 또한 충분히 생태적 견

전 가운데 하나로 정치적인 측면에서 끊임없이 재해석 됨으로써 인류의 생활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상서』는 정치의 핵심은 천과의 관계에 있다고 여겼는데, 이는 현대 생태정치학이 생명의 유기성과 우주의 전일성을 중심으로 생물의 공존을 추구하는 것과 맞닿아있다.²⁾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상서』가 생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생태와 정치라는 학제간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인류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견해는 『상서』의 구절들을 분석하고 논술함으로써 더욱 명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 “천(天)”: 『상서』의 생태

근대 인간중심주의의 세계관에 대한 확신은 수많은 폐단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학자들은 생태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일군의 학자들은 생태주의(Ecologism)라는 학문 분야를 개척하고 생물과 그 주변 환경의 관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게 된다.³⁾ 이후 생태학은 인문학 및 사회과학적 연구방법론과도 결합함으로써 다양한 학문의 영역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도록 만들었다. 생태학의 유행은 동양철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에게도 큰 시사점을 남겼는데, 생태학의 영향을 받은 일부 동양철학자들은 생태를 중심으로 유의미한 견해들을 논술하는 데에 집중한다. 여기에서 동양철학자들이 주목한 학문은 바로 유가의 철학이며, 이들은 유가의 경전 혹은 유학자들의 논술

해들이 산재해 있다는 점을 자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최민자, 『생태정치학: 근대의 초극을 위한 생태정치학적 대응』,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2007, p. 96.

3) 구승희, 『생태철학과 환경윤리』,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1, pp. 102-103.

속에는 생태적인 내용이 충만하다고 판단하였다.

주의할 만한 점은 유가의 주요 경전들이 생태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이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⁴⁾ 그렇지만 유가는 인간과 자연을 처음부터 구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란 자연의 질서에 복종하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생태적일 수밖에 없다.⁵⁾ 생태에 대한 유가의 중시는 그들이 중시하는 개념을 살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유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천을 가치의 중심에 두고 사교 체계를 전개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천은 동양에서 물질천, 주재천, 운명천, 의리천, 자연천 등 넓은 외연을 가진다.⁶⁾ 당연히 천의 넓은 외연 속에는 생태적인 측면 또한 포함되며, 실질적으로 유가는 천을 논술할 때에 생태와 관련된 내용들을 상당 부분 언급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천은 유가가 가장 중시하는 개념으로서 유가의 생태를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천에 대한 중시는 유가의 여러 경전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시 말해 유가는 천이 가지는 권위를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자연계의 현상들을 해석하고 인간의 행위양식을 규범 짓고자 한다. 유가에 속하는 경전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와 같은 태도가 가장 분명히 드러난 경전은 바로 『상서』이다. 『상서』가 말하는 천은 자연과 도덕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⁷⁾ 때문에 『상서』

4) 생태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인물은 양간문제(梁簡文帝)인데, 그는 문학작품인 「쟁부(箴賦)」 속에서 “붉은 짙은 잎사귀를 이루고, 푸른 나뭇잎의 그들은 여인의 눈썹과도 같구나. 아름다운 사람들을 채택하니 거동과 용모가 살아있는 모습이다.”(『梁簡文帝集』, 「箴賦」, “丹莢成葉, 翠陰如黛. 佳人采掇, 動容生態.”)라고 하였다.

5) 喬青學, 『儒家生態思想通論』, 北京大學出版社, 2013, p. 7.

6) 馮友蘭, 『中國哲學史(上冊)』, 商務印書館, 2011, pp. 44-45.

7) Yih-hsien YU, 「Seeking a Philosophical Foundation for an Age of Spiritual Ecology: Natural Theology Revisited」, 『哲學與文化』 第39卷, 第7期, 2012, p. 106.

는 철학적인 시각에서 천을 언급하거나 천이 가지는 내재적 원리로부터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들을 분명히 서술하고 있다. 『상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유가의 가장 정치적인 경전이라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논술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상서』는 전(典), 모(謨), 훈(訓), 고(誥)라는 형식을 통해 분명한 목적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모두 정치적인 색채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서』의 천 또한 정치적인 측면이 다분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상서』가 언급하는 천이 정치일변도인 것만은 결코 아니다. 『상서』가 서술하는 천을 살펴보면 생태적인 시각에서부터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 또한 상당히 부각되기 때문이다.

가을에 벼가 잘 익었는데, 아직 수확도 하기 전에 하늘이 천둥과 번개를 몰아치고 바람이 크게 불어 벼가 모두 쓰러지고 큰 나무들도 뽑혀 나가자 나라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⁸⁾

생태의 측면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지점은 바로 『상서』가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상을 천의 각도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서』에 따르면 천은 천둥과 번개, 그리고 바람 등의 자연현상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존재로서 생태라는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당연히 이와 같은 천은 일월성신을 비롯한 자연계의 모든 사물을 포함한다. 즉 『상서』가 생각하는 천은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대명사이며, 여러 가지 자연현상은 천의 직접적인 활동이라는 것이다. 한편 『상서』는 사람들이 기이한 자연현상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고 언급하는데, 이러한 서술을 통해 『상서』는 인간이 천에 비해 미물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이처럼 『상서』의 천은 풍부한 함의를 가지고 있으며, 생태적인 시

8) 『尚書』, 「金縢」, “秋大熟未穫, 天大雷電以風, 禾盡偃, 大木斯拔, 邦人大恐.”

각에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상서』 속에서 생태와 관련된 유의미한 관점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을 중심으로 『상서』를 이해해야 한다. 『상서』에 따르면 천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일종의 초월적 존재로서 생태적인 함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상서』의 천은 특수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태를 구성하는 존재들의 구체적인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하늘은 귀와 눈이 밝다.⁹⁾

하늘은 우리 백성들이 보는 것을 보고 하늘은 우리 백성들이 듣는 것을 들으신다.¹⁰⁾

『상서』는 천이 인간처럼 눈과 귀가 없지만 마치 눈과 귀를 통해 보거나 들을 수 있다고 서술함으로써 천이 위대하다는 점을 강조한다.¹¹⁾ 또한 『상서』는 천이 백성들이 인지하는 내용들을 통해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백성들 또한 생태 속에 포함되는 대상으로서 분명한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상서』의 천은 백성들이 보고 들은 내용에 대해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통해 응답하는데, 이는 생태적인 의미의 천이 유기성 혹은 능동성을 가진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논리에 따르면 『상서』의 천은 단순히 추상적인 사물이 아니라 생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생태계 속에 속하는 존재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9) 『尙書』, 「說命中」, “惟天聰明.”

10) 『尙書』, 「泰誓中」, “天視自我民視, 天聽自我民德.”

11) 이에 대해 『상서정의』는 “사람이 듣고 보는 것은 귀와 눈에 있으나 하늘은 형체가 없으니 사람의 일을 빌려 말한 것이다.”(『尙書正義』, 「說命中」, “人之聞見於耳目, 天無形體, 假人事以言也.”)라고 해석한다.

3. “순천(順天)” : 인류의 생존 원리

『상서』의 천은 세계의 궁극적 원인으로서는 생태적인 함의 또한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상서』 가운데 등장하는 모든 사물과 내용들은 천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제기되어야 할 질문은 『상서』의 사고체계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인간은 혼자서 세계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둘러싼 모든 사물들과 모종의 관계를 맺어야만 생활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변 환경을 어떻게 인지하고 적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질문은 『상서』도 분명히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상서』가 주목한 지점은 바로 천과 인간의 관계였다.

왕이 기자를 방문하셨다. 왕이 마침내 말씀하셨다. “아 기자여! 하늘이 묵묵히 백성들을 안정시키사 각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는데, 나는 이런 하늘의 원리(彝倫, 떳떳한 인륜)를 어떻게 펼쳐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¹²⁾

무왕이 은나라를 전복시킨 뒤에 기자를 찾아간 이유는 앞으로 자신이 어떤 지침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 기준을 세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천이 인간의 배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천의 은혜에 호응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한 것이다. 더군다나 은나라의 멸망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무왕은 반드시 천의 작용에 상응하는 행동을 나타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상서』는 기자의 입을 통해 무

12) 『尙書』, 「洪範」, “王訪于箕子. 王乃言曰, 嗚呼, 箕子. 惟天陰瀝下民, 相協厥居, 我不知其彝倫攸斂.”

왕의 주요 행동지침을 마련하는데, 그것이 바로 홍범구주이다. 홍범구주란 인간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아홉 가지 규범으로서 각각 오행(五行), 오사(五事), 팔정(八政), 오기(五紀), 황극(皇極), 삼덕(三德), 계의(稽疑), 서징(庶徵), 오복(五福)과 육극(六極)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상서』가 제기하는 홍범구주 가운데 몇몇 개념들이 생태적인 시각에서 충분히 주목할 만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다.

첫째, 오행은 하나가 물이요, 둘이 불이요, 셋이 나무요, 넷이 쇠요, 다섯이 흙입니다. 물은 적시면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요, 불은 타올라 위로 솟는 것이요, 나무는 굽기도 하고 곧기도 한 것이요, 쇠는 따르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는 것이요, 흙은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¹³⁾

오행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물들을 다섯 종류로 구분한 것으로 『상서』는 다섯 종류의 범주를 통해 세계를 이해한다. 『상서』에 따르면 오행은 각각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상서』는 오행이 인간의 삶 속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연계에 출현하는 여러 가지 성질들은 모두 오행으로부터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¹⁴⁾ 이와 같은 오행은 천으로 대표되는 생태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간략화한 것으로 『상서』는 오행에 대한 논술을 통해 인간의 삶이 천과 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간은 오행으로 대표되는 천의 작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홍범구주 가운데서 생태적으로 가치 있는 내용들은 다른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13) 『尙書』, 「洪範」, “一, 五行, 一曰水, 二曰火, 三曰木, 四曰金, 五曰土. 水曰潤下, 火曰炎上, 木曰曲直, 金曰從革, 土爰稼穡.”

14) 馮友蘭, 『中國哲學史新編(上卷)』, 人民出版社, 2001, p. 615.

넷째, 오기는 하나가 해이고, 둘이 달이요, 셋이 날이요, 넷이 별이요, 다섯이 역수입니다.¹⁵⁾

홍범구주 가운데서 네 번째 서술 대상인 오기는 네 가지의 자연물과 천의 주기적인 현상을 기록한 문헌을 가리킨다.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자연물과 이것이 운행하는 법칙을 정리한 문헌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상서』에 따르면 이 다섯 가지 내용은 인간의 생활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오행처럼 모두 천에 귀속되는 사물이다. 즉 인간의 올바른 삶을 위한 필요조건을 바로 천에서부터 찾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서』는 자연현상이 나타내는 징후를 중심으로 토론하기도 한다.

여덟째, 여러 가지 징조는 비와 햇볕의 따듯함과 추위와 바람과 이것들이 때맞춰 이르는 것이니 다섯 가지가 와서 갖추어지되 각각 그 절후에 맞는다면 여러 풀조차 무성하게 자랄 것입니다. 하나가 지나치게 많아도 흉하며 하나가 지나치게 부족해도 흉합니다. ... 해와 달과 날이 때를 바꾸지 않으면 모든 곡식이 풍성해지고 다스림이 밝아지며 뛰어난 백성이 드러나고 집안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날과 달과 해가 때를 바꾸면 모든 곡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스림이 어두워져 밝지 못하며 뛰어난 백성이 드러나지 못하고 집안은 안녕하지 못할 것입니다.¹⁶⁾

서징은 홍범구주 가운데 여덟 번째 서술 내용으로 『상서』에 따르면 인간은 여러 종류의 자연현상과 삶의 궤도를 함께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러한 자연현상이 나타내는 징후에 유의해야 한다고

15) 『尙書』, 「洪範」, “四, 五紀, 一曰歲, 二曰月, 三曰日, 四曰星辰, 五曰曆數.”

16) 『尙書』, 「洪範」, “八, 庶徵, 曰雨, 曰暘, 曰燠, 曰寒, 曰風, 曰時, 五者來備, 各以其敍, 庶草蕃廡. 一極備凶, 一極無凶. ... 歲月日, 時無易, 百穀用成, 乂用明, 俊民用章, 家用平康. 日月歲, 時既易, 百穀用不成, 乂用昏不明, 俊民用微, 家用不寧.”

주장한다. 『상서』는 천의 운행이 나타난 결과가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상들이며 천의 운행에는 일정한 질서가 있다고 생각한다. 천의 운행이 일정한 질서를 가진다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물들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질서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재앙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상서』는 천의 운행이 하나의 자연현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흥망과 성쇠를 결정짓는다고 논술한다.

이처럼 『상서』는 홍범구주 가운데 일부 내용들은 생태적인 함의를 내포하고 있으며 인간은 마땅히 홍범구주가 제시하는 규범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인간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일정한 행동지침을 가지게 되는데, 바로 천의 의지 혹은 법칙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행, 오기, 서징이 서술하는 내용들은 인간과 천의 관계를 다루고 있으며 인간은 반드시 천을 존중해야 하고 천의 운행과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관점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4. “대천(代天)”: 인류의 정치 기초

『상서』의 서술에 근거하면 인간의 모든 활동은 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인간의 삶은 천의 운행과 합치될 때에 지속될 수 있다. 사실 『상서』의 이러한 관점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상서』는 자연계에 속하는 모든 사물들이 천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인간은 영특하다거나 조직적이라는 점에서 인간과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물들을 동일한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전체 세계 속에서 인간의 지위와 행위의 명분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의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인간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자연

계의 다른 사물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상서』는 체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전개한다.

안일과 욕심으로 제후들을 가르치지 마시고 삼가고 두려워하십시오. 하루 이틀에도 기미는 만 가지나 됩니다. (비적임자를 등용하여) 한 가지 직무라도 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니 하늘의 일을 사람이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¹⁷⁾

이곳에서 『상서』는 인간이 천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인간이 천과의 합일을 추구하며, 천을 대변하는 존재라는 점을 분명히 제기한다.¹⁸⁾ 즉 천으로부터 인간의 행동이 가지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다른 사물과의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인간은 전체 세계의 질서와 조화를 담당한다는 막대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¹⁹⁾ 이 때문에 『상서』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임을 지적하는데, 당연히 이렇게 인재를 배치하는 것은 생태적인 색채를 다분히 띠고 있다. 천을 잘 이해하면서도 자연계의 여러 사물들과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최상의 인물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희씨와 화씨에게 명령하여 위대한 하늘을 경건하게 따르며 해와 달과 별의 운행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삼가 사람들에게 (농사지을) 시기를 알려주게 하셨다. … 요임금께서 말씀하셨다. “아! 너희 희씨와 화씨여! 일 년은 366일이니 윤달을 사용해 사계절을 정하고 한 해

17) 『尙書』, 「皋陶謨」, “無教逸欲有邦, 兢兢業業, 一日二日萬幾, 無曠庶官. 天工人其代之.”

18) 인간은 행위의 주체가 되지만 스스로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간중심주의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김세정, 『돌봄과 공생의 유가생태철학』, 소나무, 2017, p. 120.

19) 전병술, 「유가의 인간다운 삶과 환경윤리」, 『생태문화와 철학』, 한국환경철학회, 금정, 2007, p. 121.

『상서』의 생태정치학

를 이루어 모든 관리를 잘 다스린다면 여러 일이 모두 널리 베풀어질 것이다.”²⁰⁾

『상서』는 상고시기의 일화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역사적 사실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생태적인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일만하다. 『상서』에 따르면 요는 희씨와 화씨 일족에게 천체의 운행을 관찰하고 그 속에서 일정한 법칙을 발견하여 기록하는 직책을 부여한다. 이러한 행동들은 천을 대신하여 만물을 발전시키고 성숙한 단계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에 희씨와 화씨 일족은 1년을 하나의 단위로 삼아 일정을 세분화하고 자연계의 사물들이 성장하는 데에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든다. 즉 희씨와 화씨 일족은 천체와 역법을 담당함으로써 천을 대신하여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다. 한편 『상서』는 적절한 인물을 임용함으로써 자연계의 동식물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하기도 한다.

순임금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위아래에 있는 나의 초목과 새와 짐승들을 잘 다스리겠는가?” 모두가 말하였다. “익입니다.” 순임금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아! 익이여! 너를 나의 우(虞)로 임명한다.”²¹⁾

자연계에는 수많은 동식물들이 존재하며, 『상서』는 이들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인다. 『상서』가 기록하고 있는 순은 인간만이 존재하는 세계를 반대하는데, 그는 자연계를 구성하는 모든 동식물들을 인간과 공존해야 할 존재들로 인식하고 인간과 동식물 모두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세계를

20) 『尚書』, 「堯典」, “乃命羲和, 欽若昊天, 曆象日月星辰, 敬授人時. ... 帝曰咨汝羲暨和, 朞, 三百有六旬有六日, 以閏月定四時成歲, 允釐百工, 庶績咸熙.”

21) 『尚書』, 「舜典」, “帝曰, 疇若予上下草木鳥獸. 兪曰, 益哉. 帝曰, 兪, 咨益, 汝作朕虞.”

희망한다. 그리하여 순은 백익을 기용하고 그에게 동식물과 관련된 문제를 전적으로 일임한다. 동식물이 가지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물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심지어 『상서』는 인간과 귀신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한다.

순임금께서 말씀하셨다. 아! 사악이여 나의 삼례(三禮)를 맡을 사람이 있는가? 모두가 말하였다. “백이입니다.” 순임금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아! 백이이여! 너를 나의 질종(秩宗)로 임명하니 밤낮으로 (신을) 경외하며 사됨이 없어야 (마음이) 맑아질 것이다.”²²⁾

상고시기에 제사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의식으로 인식되었으며, 기득권의 요청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 당시에는 귀신이 실제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활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언급된 삼례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귀와 신에게 제사 지내는 의식이며,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²³⁾ 이 때문에 순은 백이를 질종(秩宗)으로 삼아 오로지 제사에만 전념하게 함으로써 귀신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는 데에 집중한다. 비록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자연계에 속한 것들이라면 마땅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상서』는 천을 대신하여 관리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순이 “삼가 때맞춰 시행하여 하늘이 맡기신 일을 빛나게 하라.”²⁴⁾고 말하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서술 이외에도 『상서』는 최고위급 관료들이 갖추어야 할 태도

22) 『尚書』, 「舜典」, “帝曰, 咨四岳, 有能典朕三禮. 兪曰, 伯夷. 帝曰, 兪, 咨伯, 汝作秩宗. 夙夜惟寅, 直哉惟清.”

23) 삼례에 대해 채침(蔡沈)은 “삼례란 천신(에게 제사 지내고 인귀에게 제사 지내며 지기에게 제사 지내는 예이다.”(『書經集傳』, 「舜典」, “三禮, 祀天神, 享人鬼, 祭地祇之禮也.”)라고 이해한다.

24) 『尚書』, 「舜典」, “惟時亮天功.”

가운데 하나가 생태지향적 태도라고 논술한다.

태사 태부 태보를 세우니 이들이 삼공이라, 도를 강론하고 나라를 경영하며 음양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직책이니, 자리를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인물이 있을 때 임명하는 것이다.²⁵⁾

전통적으로 삼공은 왕을 제외하고 최고 권력자인 동시에 정치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직이다. 『상서』 또한 삼공이 국정의 대소사를 총괄하는 관직으로 간주하고 삼공의 임무에 대해 언급한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바로 삼공이 도와 음양 등 인간을 둘러싼 세계의 균형을 조율한다고 서술한 것이다. 도와 음양은 자연계를 구성하는 원리 혹은 요소를 대표하는 개념으로서 『상서』의 이와 같은 논술은 생태 전반에 대한 관심과 그에 합당한 능력을 갖추어야만 삼공의 지위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가리킨다. 하지만 이러한 인물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기에 『상서』는 만일 삼공의 지위에 합당한 인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공석으로 두어도 무방하다고 주장한다. 이상과 같은 논술들은 모두 세계 속에서 인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상서』는 인간이 한편으로 하늘과의 합일을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천을 대신해서 자연계의 여러 사물들과 관계를 확립해야 이상적인 지위와 명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역천(逆天)”: 정벌의 대상

『상서』가 추구하는 인간은 천에 순응하면서도 천을 대신하여 자

25) 『尚書』, 「周官」, “立太師太傅太保, 茲惟三公, 論道經邦, 變理陰陽, 官不必備, 惟其人.”

연계의 다른 사물들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지만 인간은 결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에 사소한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데, 이것을 자각하거나 반성하지 못하고 하나의 관습으로 굳어지면 끝내 천과 위배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즉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물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천으로 대표되는 생태에 반대되는 결과를 자아내는 것이다. 『상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상당히 명확한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천을 위배하는 존재들을 정벌함으로써 문제의 근본 원인을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감에서 크게 싸우게 되자 마침내 육경을 소집하셨다. 왕이 말씀하셨다. “아! 육군(六軍)의 일을 하는 병사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깨우쳐 고하노라! 유호씨가 오행을 함부로 소홀하게 다루며 삼정을 게을리하여 내버리자 하늘이 그 명맥을 끊고자 하시므로 이제 나는 하늘의 별을 삼가 시행하고자 한다.”²⁶⁾

『상서』는 천에 대한 순응을 중시하는 것만큼 천을 거스르는 행위에 대해 경계한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군사들을 집결시키고 정벌의 목적을 설명하거나 사기를 진작시키는 여러 연설문들이다. 이곳에서 유호씨에 대한 정벌 주장하는 왕의 명분은 매우 간단명료하다. 바로 오행과 삼정을 어지럽힘으로써 천의 공분을 쌓게 되었다는 것이다.²⁷⁾ 이 때문에 왕은 자신이 천의 입장을 대변하여 정벌을 시행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정벌은 천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에 정확할 뿐만 아니라 불가항력적일 수밖에 없다.²⁸⁾

26) 『尙書』, 「甘誓」, “大戰于甘, 乃召六卿. 王曰, 嗟, 六事之人, 予誓告汝. 有扈氏威侮五行, 怠棄三正, 天用勦絕其命, 今予惟恭行天之罰.”

27) 채침은 삼정을 “자, 축, 인의 정월이다.”(『書經集傳』, 「甘誓」, “子丑寅之正也.”)라고 해석하며, 역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한다.

28) 金景芳 呂紹綱, 「《甘誓》淺說」, 『社會科學戰線』, 1993, 第2期, p. 179.

이 희화가 덕을 얹어 버리고 술에 빠져 어지러우며 직분을 어기고 자리를 지키지 않아 마침내 하늘의 기강을 어지럽혔다. 그 직무를 멀리 땡개치자 9월 초하루에 해와 달이 방수(房宿)에 모이지 않으니 악관이 복을 올리고, 말단 관리들은 뛰어다니며, 서리(胥吏)들은 허둥대는데, 희화는 시동(尸童)처럼 자리만 지키면서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여 하늘의 현상에 혼미하여 선왕께서 정한 주벌(誅罰)의 죄를 범하였으니 정전(政典)에 이르기를 ‘제때보다 앞서도 용서 없이 죽이고 제때에 미치지 못해도 용서 없이 죽이라’ 하였다. 이제 나는 너희 군사들을 거느리고 천벌을 받들어 시행하고자 하니 너희 군사는 왕실을 위해 힘을 합쳐 부디 나를 도와 천자의 위명을 삼가 받들도록 하라!²⁹⁾

이곳에서 언급된 희화는 앞에서 기술된 희씨와 화씨 일족을 가리키며, 앞에서는 요에 의해 발탁되어 막중한 임무를 담당한다고 서술되었다면 이곳에서는 정벌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희씨와 화씨 일족이 애초에 부여받았던 임무는 천체의 운행을 관찰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자연계의 변화에 맞추어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상서』에 따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의 책임감은 점차 사라지게 되고 그 직무 또한 등한시하게 된다. 다시 말해 자연계의 사물들과 관계를 맺는 데에 소홀히 함으로써 막대한 혼란을 일으킨 것이다. 『상서』는 이러한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이들을 정벌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다. 자연계의 사물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정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왕의 명령을 받은 윤후(胤侯)는 군사들을 출정시킬 때에 자신이 천을 대신하여 희씨와 화씨 일족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연설한다. 이러한 논술은 아무리 공신 집안의 일족이라고 할지라도 천과 위배된다면 타도하는 것이 옳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낸다. 이와 유

29) 『尙書』, 「胤征」, “惟時義和, 顛覆厥德, 沈亂于酒, 畔官離次, 俶擾天紀. 遐棄厥司, 乃季秋月朔, 辰弗集于房, 瞽奏鼓, 鼂夫馳, 庶人走, 義和尸厥官, 罔聞知, 昏迷于天象, 以干先王之誅. 政典曰, 先時者殺無赦, 不及時者殺無赦. 今予以爾有衆, 奉將天罰, 爾衆士同力王室, 尚弼予, 欽承天子威命.”

사한 관점은 이후 무왕이 은나라를 전복시킬 때에도 등장한다.

지금 상왕 수가 부인의 말만 따르고 있으니 올려야 할 제사를 함부로 팽개쳐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선왕께서 남기신 동부모의 아우들을 함부로 팽개쳐 도리를 따르지 않으며, 죄가 많아 달아났던 사방의 사람들을 높여서 대우하고 신임해 부리며 대부와 경사로 삼아 백성에게 포학하게 굴도록 하여 안팎으로 상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제 나 발(發)은 하늘의 별을 삼가 시행하고자 한다.³⁰⁾

나 소자는 밤낮으로 삼가 두려워하여 문왕께 명을 받아 상제께 유제사를 지내고 토지신께 의제사를 지낸 뒤, 너희들과 함께 하늘의 별을 완수하고자 한다. 하늘은 백성들을 가엽게 여기니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하늘은 반드시 따르신다. 너희들은 부디 나 한 사람을 도와서 사해를 영원히 맑게 하도록 하라.³¹⁾

위의 내용은 은주 교체기의 일화를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주(紂)가 관리하던 은나라와 문왕의 유지를 이어받은 주나라가 대치 중이었다. 무왕은 주의 폭정에 반발하며 제사를 소홀히 함 패륜적 행위 문제있는 인물을 등용함 백성들을 학대함 등의 죄명을 나열한다. 『상서』가 보기에 주의 범죄행위는 모두 천이 바라지 않는 것으로 천과 위배되는 것들이었다. 따라서 무왕은 군사를 일으켜 은나라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염원을 확실히 표명한다. 『상서』는 이와 같은 무왕의 행위를 권력에 대한 욕망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천과의 관계에서 그 정당성을 설명한다. 즉 무왕이 혁명을 일으킨 것은 천을 염두에 둔 것이며, 자연계의 수많은 사물들

30) 『尙書』, 「牧誓」, “今商王受, 惟婦言是用, 昏棄厥肆祀弗答, 昏棄厥遺王父母弟不迪, 乃惟四方之多罪逋逃, 是崇是長, 是信是使, 是以爲大夫卿士, 俾暴虐于百姓, 以茲究于商邑. 今予發, 惟恭行天之罰.”

31) 『尙書』, 「泰誓上」, “予小子夙夜祗懼, 受命文考, 類于上帝, 宜于冢土, 以爾有衆底天之罰. 天矜于民, 民之所欲天必從之, 爾尙弼予一人, 永清四海.”

과의 관계를 고려한 뒤에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왕은 자신의 혁명이 천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고, 인간을 둘러싼 세계를 한층 더 평화롭게 만드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변론한다.

이렇듯 『상서』는 자연계의 여러 사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천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실천하는 인물은 반드시 정벌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로부터 정벌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천에 대한 『상서』의 이와 같은 견해는 충분히 생태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데, 『상서』 속에서 생태는 정벌을 긍정하고 혁명을 옹호하는 전제가 된다.

6. 나가는 말

『상서』에서 생태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상서』 속에 등장하는 천은 일종의 초월적 존재로서 생태적 함의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상서』 속에서 생태적으로 유의미한 관점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천을 중심으로 『상서』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상서』는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 현상을 천과 관련시키고 있으며, 천이 특수한 능력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상서』는 인간이 천에 순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내용이 홍범구주이다. 홍범구주 가운데 일부 내용들은 인간과 천의 관계를 논술하며, 오행 오기 서징에 대한 논술로부터 『상서』는 인간의 삶이 천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천이 안배한 규칙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능력이 자연계 속에 존재하는 다른 사물보다 뛰어나다는 점은 『상서』 또한 동의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상서』는 인간이 세계 속에서 특수한 지위를 차지한다고 주장하는데, 바로 천을 대신

하여 각종 일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상서』의 이와 같은 견해는 인간을 정치와 연결시키는 부분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상서』는 적절한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자연계와의 조화를 강조하는데, 여기에서 『상서』가 말하는 정치는 다분히 생태적인 색채를 갖추고 있다.

인간이 천과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 『상서』는 매우 단호한 입장을 취한다. 천에 순응할 것을 주장하는 것만큼 천에 위배되는 행위를 극도로 경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서』는 천에 위배되는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과감히 정벌할 것을 주장한다. 『상서』 속에는 몇몇 정벌에 관한 논술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벌을 일으키는 명분은 모두 정벌되는 대상이 천을 거스르거나 소홀히 한 데에서 찾고 있다. 이와 같은 『상서』의 정벌 논리는 혁명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기후변화는 현대 사회의 인류가 직면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 생태리는 개념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대 과학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철학 또한 막중한 임무를 담당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전은 현대 사회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유의미한 내용들을 발굴함으로써 인류의 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다. 『상서』는 유가의 주요 경전 가운데 하나로서 인간이 존재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모두 생태 속에서 찾고 있는데, 이는 『상서』가 풍부한 생태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書經集傳』, 上海古籍出版社, 1987.
이세동, 『서경』, 을유문화사, 2020.

『상서』의 생태정치학

2. 논문

- 전병술, 「유가의 인간다운 삶과 환경윤리」, 『생태문화와 철학』, 한국환경철학회, 금정, 2007, pp.101-125.
金景芳 呂紹綱, 「《甘誓》淺說」, 『社會科學戰線』, 1993, 第2期, pp.177-181.
Yih-hsien YU, 「Seeking a Philosophical Foundation for an Age of Spiritual Ecology: Natural Theology Revisited」, 『哲學與文化』 第39卷, 第7期, 2012, pp.91-114.

3. 단행본

- 肖占鵬 董志廣 校注, 『梁簡文帝集校注』, 南開大學出版社, 2015.
李學勤 主編, 『尚書正義』, 北京大學出版社, 1999.
구승희, 『생태철학과 환경윤리』,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1.
김세정, 『돌봄과 공생의 유가생태철학』, 소나무, 2017.
최민자, 『생태정치학: 근대의 초극을 위한 생태정치학적 대응』,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2007.
喬青舉, 『儒家生態思想通論』, 北京大學出版社, 2013.
馮友蘭, 『中國哲學史(上冊)』, 商務印書館, 2011.
馮友蘭, 『中國哲學史新編(上卷)』, 人民出版社, 2001.

(투고일: 2023. 4. 29 심사완료일: 2023. 6. 19 게재확정일: 2023. 6. 23)

이오륜

소속: 성균관대학교 유학동양한국철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퇴계인문관 31522호
전자우편: lihen0912@nate.com

[Abstract]

Ecopolitics of *Shangshu*:
Focusing on the Idea of Tian

Lee, Oh-Ryun

The issue of climate change in modern society, which is of global concern today, is directly related to the concept of ecology. Therefore, it is of utmost importance to reinterpret the classical literature from the perspective of ecology and explore its ecological connotation. In *Shangshu*, although the word “ecology(生態)” does not appear explicitly, the word “heaven(天)” in it can be regarded as a synonym that represents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can be regarded as having a similar meaning to “ecology”. *Shangshu* also advocates that human beings should conform to the will of heaven in order to survive, and in addition, there are several contents in Hong Fan Jiu Chou(洪範九疇) that clearly show the relationship between heaven and humans. On the other hand, as a kind of linkage between “heaven” and nature, human beings try to represent “heaven” and coordinate with all things in nature, with politics being an inevitable activity.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records of *Shangshu*, if human beings violate the laws of heaven, they should be punished accordingly, and in this regard, *Shangshu* also ensures the legitimacy of expedition and revolution. It can be therefore concluded that the “heaven” being pertained to in *Shangshu* contains rich ecological connotation, and that the basis of human existence and all activities are closely related to ecology.

Key words : Ecology; *Shangshu*; Shun Tian(順天); Dai Tian(代天);
Ni Tian(逆天)